주간 증시 브리핑

2025.12.22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AI 버블 논란 속에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함. 코스피는 4주 만에 하락하며, 4천선대로 다시 후퇴함(4,021p, 주간 -147pt, -3.5%). KOSDAQ도 하락했으나, 주후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로 낙폭을 축소함(915p, 주간 -2.4%). 원달러는 환율 안정 정책에도, 불안을 지속함(12/17일 장중 1,482원)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오라클의 AI투자에 대한 우려로 흔들렸으나, 마이크론의 호실적 전망(매출 183~191억 달러 vs. 144억 달러 예상)과 예상을 하회한 11월 인플레(2.7%yoy) 결과에 안도하며 보합으로 마감(S&P500 +0.1%, 나스닥 +0.5%). 日 증시도 하락했으나 BOJ 금리인상 후 하락 폭을 축소(닛케이 -2.6%). 中 증시도 경기 부진 속에 혼조로 마감(상해 보합, 항셍 -1.1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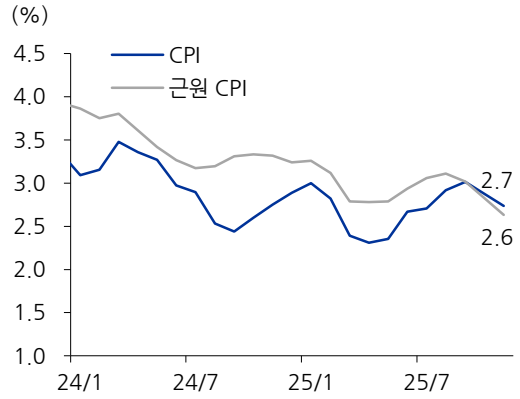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美 Tech 업체들간 출혈 경쟁으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. 그러나 美 마이크론 실적 호조에서 나타났듯, 내년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기대는 유효함. 연말까지 6거래일을 앞두고 완만한 주가 회복 시도를 예상함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3Q GDP(12/23일)
  ② 韓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(12/23일)
  ③ 韓 12월 1-20일 수출(12/22일)
  ④ 日 10월 금정위 의사록 공개(12/24일)
  ⑤ 韓 12월 소비자심리지수(12/24일)
  ⑥ 美, 韓, 英, 홍콩 휴장 (크리스마스, 12/25일)
  ⑦ 12월 결산 법인 배당기준일 (12/26일)

구분		12/19	1W	1M
KOSPI	↓	4,021	-3.5%	2.3%
S&P500	↑	6,835	0.1%	2.9%
DOW	↓	48,135	-0.7%	4.3%
닛케이225	↓	49,507	-2.6%	2.0%
상해종합	↑	3,890	0.0%	-1.4%
원/달러(원)	↑	1,476	0.2%	0.7%
엔/달러(엔)	↑	157	0.7%	0.9%
국고채3년(%)	↓	3.010	3.093	2.87
국고채10년(%)	↓	3.342	3.409	3.28
미국채10년(%)	↓	4.15	4.19	4.14
WTI(달러/배럴)	↓	56.7	-1.4%	-4.7%
한5-yr CDS(bp)	↓	22.1	-0.5	-1.2

CHART of the week

美 소비자물가 추이



1 美 11월 신규 일자리 +6.4만명 증가(12/16일)

완만한 고용 둔화, 뚜렷한 신호 부재

- 美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+6.4만명 증가해시장예상을소폭상회함.
- 신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 둔화 또는 정체에 가까운 모습임. 정부폐쇄로 발표되지 못했던 10월 일자리수는 -10.5만명 감소함.
- 실업률은 4.6%로 상승.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 다만 정부폐쇄로 10월 미집계 영향이 반영. 평소보다노이즈가크게나타남.
- 신규 고용도 적지만, 해고도 적은 상황임.(No hire, No fire) 美 연준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.

2 美 11월 소비자물가 +2.7%로 둔화(12/18일)

왜곡 논란에도 물가 상승 압력 낮아

- 美 11월 소비자물가는 +2.7%yoy 상승하며 시장 예상(+3.0%)을크게하회함.
- 근원 물가는 +2.6%yoy 상승.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. 이번 수치는 정부폐쇄 여파로 통계 수집이 원활하지 못한 영향이 작용함(11/14일 이후 데이터만반영).
- 주거비 하락 영향이 컸음. 그러나 10월 주거 물가를 0으로 가정함에 따라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음(주거비 비중 26.3%).
- 최근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한 WTI 유가를 감안할 때 美 물가는 내년 트럼프의 감세, 관세배당(연 10만 달러 미만 가정에 인당 2천 달러 지급) 이전까지안정적일전망.

3 日 BOJ 기준금리 25bp 인상(12/19일)

금리인상에도 실질 기준 (-), 엔화 급등 없어

- BOJ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.75%로 25bp 인상함. 올해 1월 +25bp 인상 이후 11개월 만임., 日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임.
- 성명서에서 BOJ는 日 경제가 일부 약한 부분이 있지만,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, 올해 견고한 임금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.
- 이번 금리인상에도 日 금리는 실질 기준 (-)임 (11월 日 CPI +2.9%yoy). 日 10년 국채금리는 2006/5월 이후 처음으로 2%를 넘어섬. 엔달러는 155엔 후반대로 상승함.
- 엔캐리 청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는 기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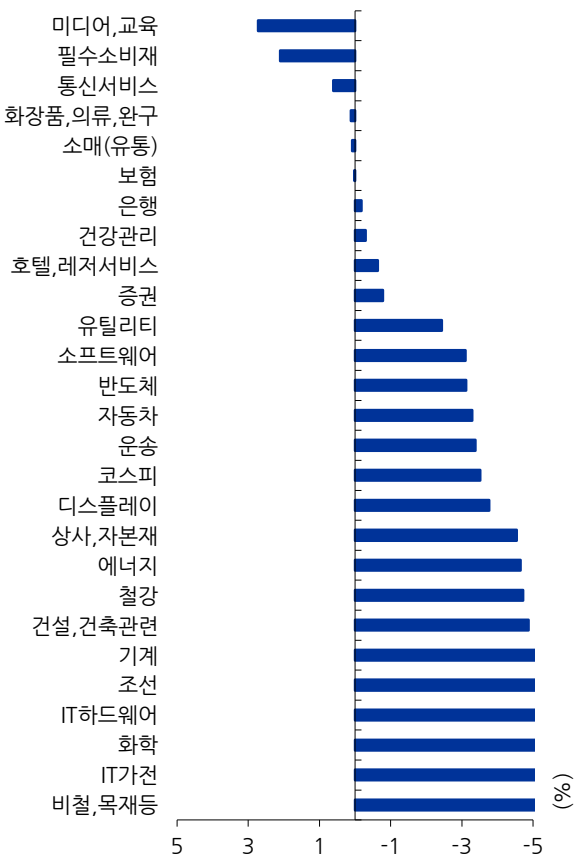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12/15~19일)

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vs 환율 및 BOJ 인상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010%(-8.3bp), 10년물 금리 3.342%(-6.7bp)마감.
- 국채선물 만기 겹치며 주 초 금리 급락 출발. 환율 상승으로 물가 우려 가중되자 금리 추가 하락 제한되었으나, 통화당국의 구두개입 및 정책 등으로환율소폭진정
- 한은 총재, 물가 설명회에서 매파적 태도 보였으나 11월 금통위 내용 반복으로 영향력 제한. 주 후반 BOJ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금리도 하락폭 일부 반납하며마감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12/19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12/22 ~ 12/26)

美 12월 소비자신뢰지수(12/23일) → 소폭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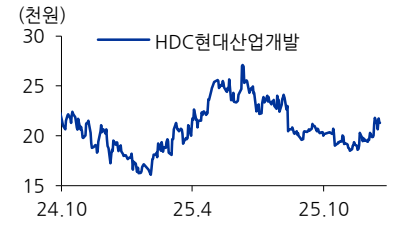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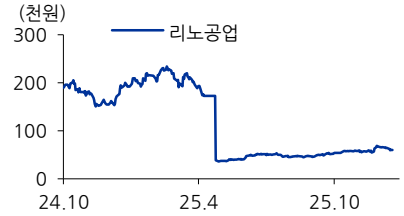
-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1.4로 11월 88.7에서 반등할 전망
- 관세 발 물가 상승 압력과 높은 금리,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소비 심리는 올해 들어 위축된 상황. 소득 별로는 지난 몇 달간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의 심리 악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
- 소비자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 요인은 잔존하지만, 소비자 재무구조는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. 연준의 금리 인하로 고용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韓 12월 소비자심리지수(12/24일) → 전월비 소폭 하락

- 한국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나, 110부근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- 최근 환율과 물가 상승 영향으로 소비 심리는 소폭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나, 높은 주가 등에 기반한 소비 심리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
-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를 보면 소비쿠폰 효과가 소멸된 11월에도 소비 증가세는 양호했음. 한은 금리 인하 종료에 따른 최근 시장 금리 상승이 시차를 두고 부담을 줄 수 있으나, 내년까지 완만한 소비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12/22 (월)	▪ 韓 12월 1-20일 수출 (P: +8.2%yoy)	
12/23 (화)	▪ 美 3분기 GDP (C: +3.1%qoq, P: +3.8%qoq) ▪ 美 10월 내구재주문 (C: -1.4%mom, P: +0.5%mom)	▪ 韓 BOK 금융안정회의
12/24 (수)	▪ 韓 12월 소비자심리지수 (P: 112.4pt)	▪ 日 10월 금정위 의사록 ▪ 美, 英, 獨, 홍콩 조기폐장(크리스마스 이브)
12/25 (목)		▪ 美, 韓, 英, 獨, 홍콩 휴장(크리스마스)
12/26 (금)		▪ 英, 獨, 홍콩 휴장(박싱데이) ▪ 韓 12월 결산배당 기준일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건설/부동산	HDC현대산업개발 (294870)	21,800 (12월 12일)	-2.3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4,256.2 / 4,226.3 / 4,540.7 영업이익 184.6 / 307.0 / 456.0 순이익 155.7 / 226.4 / 342.5 PER (배) 7.6 / 6.2 / 4.1	▪ 자체사업인 서울원 아이파크 매출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 효과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▪ 이익 성장 기대감, 그리고 제한적인 미분양 및 PF보증 리스크에 비해 저평가 구간 ▪ 기존 주주환원정책(별도 당기순이익의 20% 이상 현금배당) 외에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(11/20)
바이오/제약	한미약품 (128940)	445,500 (12월 12일)	-1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,495.5 / 1,522.7 / 1,631.8 영업이익 216.2 / 237.8 / 268.2 순이익 140.4 / 173.9 / 201.5 PER (배) 29.6 / 35.5 / 30.7	▪ 비만대사 관련 파이프라인 유망(에페글레나타이드 2026년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, HM15275 비만 2상, HM17321 비만 1상 진행 중) ▪ MSD에 기술이전한 MASH 치료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임상2상 성공 기대
의료기기	엘앤씨바이오 (290650)	58,000 (11월 28일)	+19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72.1 / 86.5 / 118.5 영업이익 2.5 / 6.2 / 18.9 순이익 141.0 / (79.0) / 30.2 PER (배) 3.9 / - / 124.9	▪ 리투오 매출 연간 가이던스 상향(30억 → 50억)에 따른 탑라인 증가 ▪ 리투오의 수익성이 높아 (opm 50%) 전사 영업이익률의 가파른 개선 (3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. 별도 opm 22%, 연결 opm 13%) ▪ 메가덤플러스 중국 판매 계약 연내에 마무리 될 예정. 내년부터 중국법인 매출 발생될 것으로 전망
반도체 부품	리노공업 (058470)	68,300 (11월 28일)	-12.9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278.2 / 364.8 / 430.4 영업이익 124.2 / 169.9 / 204.0 순이익 113.3 / 142.2 / 170.8 PER (배) 25.8 / 31.9 / 26.6	▪ ASIC 시장 성장 및 TPU 볼륨 확대로인한 고성능 IC 테스트 소켓 수요 증가 기대감 유효 ▪ 4분기는 대면적, 신규 모바일 및 AI 칩 관련 소켓 매출이 지속 증가하며 비수기 효과를 상쇄할 것 ▪ 26년 2나노 등 선단 공정 비중 증가에 따라 집적도 향상 → ASP 증가 효과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
화장품	에이피알 (278470)	219,500 (11월 14일)	+10.7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722.8 / 1,435.7 / 1,949.7 영업이익 122.7 / 343.5 / 479.4 순이익 107.6 / 279.7 / 387.2 PER (배) 17.6 / 32.7 / 23.5	▪ 미국 얼타뷰티 25년 하반기 전매장 입점 하였음. 분기별 재주문량 증가로 26년 매출 상승 견인할 전망 ▪ 기존 현지 마케팅 진행되지 않고 성장했던 유럽, 독일 영국 등 주요지역 마케팅 진행하며 성장 본격화될 것 ▪ 올해 11~12월 세일 행사 호실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상향 가능성